

**2021학년도 부산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전형
논술고사(인문·사회계) 문제지**

지원학과(학부)		수험번호		성명	
----------	--	------	--	----	--

【유의 사항】

1. 시험 시간은 100분입니다.
2. 답안은 답안지의 해당 문제 번호에 연필 또는 샤프로 작성하시오.
3. 답안을 수정할 때는 지우개를 사용하시오.
4. 제목을 쓰지 말고 본문부터 시작하시오.
5. 학교명, 성명 등 자신의 신상에 관련된 사항은 답안에 드러내지 마시오.
6. 답안 연습은 연습지를 활용하시오.
7. 답안지, 연습지 및 문제지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

【문제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그 결과 세계 최고의 고학력 국가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까닭은 무엇인가. 배울수록 자유로워져야 마땅한데, 현실은 정반대이다. 오히려 더 많은 세속적인 욕망에 끌려다닌다. 우열과 귀천의 가파른 위계 속에 점점 더 깊숙이 편입되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자기를 돌보는 마음이 자라나지 못한다.

나를 성장시키고 삶의 경지를 넓히는 공부는 어떻게 가능할까. 노숙인 인문학 강의에 참여했던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변화는 이 질문에 해답을 준다. 처음에는 모자를 꼭 뒤집어쓰고 상대방과 눈을 맞추지 않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편안하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한 노숙인은 1년 동안 진행된 인문학 수업이 마무리되는 즈음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수료생들끼리 강의가 모두 끝난 기념으로 야유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분은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지경이었지만 안간힘을 다해 참석했다. 그분은 새로운 지식을 쌓으며 자신을 돌보는 마음이 자라날 수 있었던 것에 고마움을 느낀 것이다.

(나) ㉠ 『**라틴어 수업**』은 로마법을 전공한 저자가 대학에서 한 라틴어 강의를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라틴어는 본고장인 유럽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하지 않는 언어로, 고대와 중세의 문헌이나 종교를 연구하는 소수 전문가를 위한 학술어입니다. 저자는 강의에서 라틴어의 문법과 단어를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고대 로마의 철학과 역사, 문화와 지혜가 담겨 있기에 많은 학생들의 호응을 얻는 것입니다. 저자는 결국 서구문명의 지적 전통을 돌아보는 라틴어 강의를 통해 자신과 인생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라틴어는 실생활에서 무용하지만, 우리는 이제 라틴어 강의를 통해 새로운 세계를 접하고 자신의 세계를 확장해 갈 수 있습니다.

(다) 한스 홀바인의 ㉡ <**대사들**> (1533)은 영국 왕실에 파견된 두 명의 대사들이, 그들의 특권을 나타내는 도구들에 둘러싸인 모습을 묘사한 작품이다. 그들의 자신감 있는 몸가짐과 눈빛 그리고 류트, 플루트, 천체구, 휴대용 해시계, 찬송가 책, 항해와 기하학 기구들은 르네상스 이래로 서양문화가 이룬 과학 지식과 정복 영토를 상징한다. 그러나 화가는 이 우월하고 자신에 찬 인물들 밑으로 대각선의 시선으로만 인식되는 커다란 해골을 그려 넣음으로써 이 작품을 훌륭한 예술로 변모시켰다. 이러한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암시를 전달함으로써 전도서의 한 구절 “헛되도다,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를 시각적으로 구현했다. 예술은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의 수단이며, 세계 속으로 들어가 그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는 방법이다. 예술작품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통찰력과 이해, 세계를 보는 방식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이다. 상상력 풍부한 예술의 경치 속을 여행하는 것, 그러면서 거기서 얻게 되는 경험은 우리의 내적 삶을 도야하는 강력한 수단이다.

(뒷면에 계속)

(라) 율곡의 『격몽요결(擊蒙要訣)』 서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사람 노릇을 하자면 공부를 해야 한다. 공부란 무슨 남다른,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다. 일상적 삶에서, 관계와 거래에서, 일을 적절히 처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일 뿐이다. 마음에 현묘한 것을 구하거나, 세상을 지배하는 힘을 얻고자 하는 일이 아니다. 공부를 안 하면, 마음은 잡초로 뒤덮이고, 세상은 캄캄해진다. 그래서 책을 읽고, 지식을 찾는다. 오직 그때라야, 정신의 뿌리가 튼튼해지고, 실천함이 중(中)을 얻는다.”

율곡은 중(中) 혹은 지선(至善)을 이룩하고 실천으로 완성하는 것이 인간의 평생 사업이라 말한다. 율곡의 평생의 과제는 투명한 공적 자아로, 사태의 원리를 탐구하여 그 지식을 토대로 현실을 혁신해 나가는 것이 되었다.

(마) 사마천의 『사기(史記)』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이사(李斯)는 초나라 상채(上蔡) 사람이다. …(중략)… 그는 순자(荀子)에게로 가 천하를 다스리는 제왕의 기술을 배웠다. 그는 공부를 끝마치자 초나라 왕은 섬길만한 인물이 못 되고, 여섯 나라는 모두 약소하여 섬겨서 공을 세울 만한 나라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서쪽 진나라로 들어가기로 하였다. 그는 순자에게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였다.

“지금은 만승의 제후들이 바야흐로 서로 세력을 다투고 있는 때여서 유세자들이 정치를 도맡고 있습니다. 또 진나라 왕은 천하를 집어삼키고 제(帝)라고 일컬으며 다스리려 합니다. 이는 지위나 관직이 없는 선비가 능력을 펼칠 때이며 유세가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비천한 자리에 있으면서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않는 것은 짐승이 고기를 보고도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본다 하여 억지로 참고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부끄러움은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며, 가장 큰 슬픔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입니다. 오랜 세월 낮은 자리와 곤궁한 처지에 있으면서 세상의 부귀를 비난하고 영리를 미워하며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 의탁하는 것은 선비의 마음이 아닐 듯합니다. 그러니 저는 서쪽 진나라 왕에게 유세하려고 합니다.”

(바) **지식소매상**은 고의건 아니건 마켓월드*의 승자들이 변화의 편에 서 있는 듯한 모양새를 만들어낸다. 불평등의 시대에 대중이 바라는 종류의 변화, 때때로 선거철에 강령으로 제시되는 그것은 대개 엘리트들이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변화를 거부하기만 한다면 엘리트에 대한 대중의 적대감을 키울 뿐이다. 엘리트의 입장에서는 변화를 선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훨씬 유용하다. 물론 그들이 선호하는 변화일 테지만 말이다. 일례로 사회 내의 계층 간 이동성이 줄어드는 시대에 가난한 아이들을 교육하는 문제를 살펴보자. 비판적 지식인이라면 지방의 재산세로 지원하지 말고, 대다수의 선진국처럼 전국 규모의 공동 자금을 조성해서 좀 더 평등하게 지원하자고 제안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식소매상이라면 마켓월드와 그 승자들에게 일종의 지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말하자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기 있는 교사들에게는 더 큰 보상을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배제하는 아이디어를 예로 들 수 있다. 극단적인 부의 불평등 문제에 있어서 비판적 지식인이라면 공정한 경제적 재분배를 요구할 것이다. 반면, 지식소매상은 유능한 지도자로부터 빈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명목으로 창업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라는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모든 중요한 사안에서 지식소매상은 마치 변화를 이루어 내는 것처럼 행동하면서도, 문제가 많은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마켓월드의 의도에 그들도 참여한다.

*마켓월드: 신흥 권력 엘리트의 세계로, 그들의 네트워크, 공동체, 문화, 마음가짐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

1-1. 제시문 (가)를 활용하여 제시문 (나)의 ㉠ 『라틴어 수업』, 제시문 (다)의 ㉡ <대사들>(1533)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250자±20자) [15점]

1-2. 제시문 (가)의 핵심 논지를 바탕으로 제시문 (마)의 이사(李斯)를, 제시문 (라)의 핵심 논지를 바탕으로 제시문 (바)의 지식소매상을 평가하시오. (250자±20자) [15점]

(다음 장에 계속)

【문제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이제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힘을 과학을 통해 부여받고, 경제를 통해 끊임없는 충동을 부여받아 마침내 사슬로부터 풀려난 프로메테우스는 자신의 권력이 인간에게 불행이 되지 않도록 자발적인 통제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하나의 윤리학을 요청한다. 무엇이 윤리의 나침반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미리 사유된 위험 자체이다.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심상치 않은 상황의 변화, 위험이 미칠 수 있는 전지구적 범위, 그리고 인간의 몰락 과정에 대한 징조를 통해서 비로소 윤리적 원리들이 발견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들로부터 새로운 권력에 대한 새로운 의무들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이것을 ‘공포의 발견술’ 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미리 예견된 인간의 왜곡이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왜곡으로부터 보전해야 할 인간의 개념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예견된 공포를 미리 발견하여 그에 대한 책임감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책임의 범위를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와 자연에까지 확장하여 인간 권력의 침입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나) 기업의 경영자들에게는 주주들의 이익 증진에 대한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근로자와 같이 기업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소비자들과 주위 공동체에 대한 의무도 있다. 결국 기업의 목적은 양질의 생산물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공동체와 구성원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음으로써 사회에 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기나 상수원을 오염시키는 기업, 공공의 자원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기업, 인종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는 기업, 자연 환경의 아름다움을 훼손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경제 활동 혹은 안전을 위협하는 기업은 공공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없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기업은 소비자들에게 좋은 품질의 생산물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들이 만든 제품의 위험성과 오용 가능성, 더 나아가 회사의 차별적인 고용 및 승진 관행, 산업폐기물이 주변의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져야한다.

(다) 한 기업은 올해 지속가능보고서에서 환경적인 성과와 가치 창출을 언급하면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비즈니스의 지속가능성에 매우 중요하다.” 라고 밝혔다. 이 기업은 현재 전 사업장에서 「환경정책 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환경목표를 제시하고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친환경 원료와 재활용 소재의 사용을 늘리고 모든 제품과 포장재에 지속가능 소재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스마트매뉴팩처링*을 통한 자원 사용 최소화, 에너지 고효율 설비 도입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 감소, 품질관리를 통한 불량률 감소, 물류 수송 혁신을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등을 실천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계획이다.

*스마트매뉴팩처링: 제품의 설계, 개발, 제조, 유통, 물류 등 모든 과정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생산.

(라) 물류 기업들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적극적 도입을 통해 물류비용이 감소하고 수익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업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도입하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먼저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9년 화물차와 관련된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8백여 명, 부상자는 4만 2천여 명에 달했다. 사고 원인의 상당 부분이 과로, 졸음운전 등과 같은 운전자 과실인 점을 감안하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입은 이러한 사고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율주행 자동차는 실시간 교통 상황 정보를 이용하여 최적의 경로를 찾아 운행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교통흐름이 원활해지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기술개발을 위한 막대한 투자비용과 이로 인한 높은 가격으로 인해 아직 그렇게까지 많은 기업들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

(뒷면에 계속)

(마) 정부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포함한 신성장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기업이 신성장산업 시설에 투자하면 그 투자금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기존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역시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개편하여 세금 감면범위 및 감면한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기업이 투자한 신성장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해서는 세법상 최고 수준으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기업이 신성장산업에 대한 연구개발에 더 많이 투자할수록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공제(控除):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빼냄.

(바) 시장실패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먼저 시장실패는 독점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가격을 올리거나 과점 기업이 담합을 하여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는 등 시장이 불완전한 경쟁상황일 때 발생한다. 또 국방, 치안, 공원과 같이 공공재의 특성을 가진 재화나 서비스의 경우 무임 승차자의 문제로 인해 수익을 얻기 힘든 기업들이 사회의 최적 수준만큼 생산에 참여하지 않을 때 시장실패가 나타난다. 그리고 한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다른 경제 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지만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경제나, 손해를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외부불경제의 발생도 시장실패의 요인이 된다. 외부경제는 사회의 최적 수준보다 과소 생산·소비되는 경향을, 외부불경제는 사회의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소비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외에도 시장 거래의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 다를 때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역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사람들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시장실패의 요인 중 하나이다.

시장실패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불완전 경쟁에서 생겨나는 시장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상품의 가격을 직접 정하거나 관련법을 제정하여 기업 간의 경쟁을 촉진한다. 공공재의 특성을 지닌 재화나 서비스는 정부가 직접 생산하여 공급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한다. 외부경제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해 세금 감면 및 보조금 지급의 혜택을 주거나,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경제 행위에 대해 벌금이나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경제 주체의 행동을 유도하기도 한다.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포되어 있을 때는 품질 인증제, 원산지 표시제 등과 같이 상품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2-1.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핵심 논지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의 기업 활동을 평가하시오. (250자±20자) [15점]

2-2. 제시문 (라)의 상황에 대한 제시문 (마)의 정부 활동을 제시문 (바)를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250자±20자) [15점]

(다음 장에 계속)

【문제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문학의 기능**은 인식적 기능, 윤리적 기능, 미적 기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인식적 기능은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세계를 간접 경험함으로써 인간과 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는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다양한 삶의 방식을 접하게 되며, 일상에 감춰져 있거나 의식하지 못했던 현실의 여러 의미를 알 수 있다. 윤리적 기능은 문학을 통해 일상의 삶과 세계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아가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더 나아가 현명하고 가치 있는 삶의 방식을 생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문학 작품을 읽고 우리는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점검하고 좀 더 이상적인 삶을 지향하게 된다. 또한 자신이 속한 세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실천 의지를 갖게 된다. 미적 기능은 문학 작품에 구현된 다양한 형상화 방식을 통해 예술적 감흥을 얻고 심미적 감수성을 기르도록 돕는 것이다. 작가는 문학적 표현수단, 구조화된 예술적 형식, 자유로운 상상력 등을 통해 작품에서 미적 가치를 실현하고, 우리는 이를 경험하고 즐기으로써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된다.

(나) 문학 작품을 통일적으로 인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짜 주장이 있다. 그것은 문학에 있어서의 내용과 형식의 문제이다.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문학 작품에 대해 내용은 좋은데 형식이 나쁘다든가, 형식은 좋은데 내용은 나쁘다라는 식의 말을 자주 듣는다. 그것이 더 발전하면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가 무엇을 쓰느냐가 중요한가 하는 해괴한 문제로 탈바꿈한다. 문학은 말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쓰느냐야말로 문학의 생명이라고 한편에서 말하면, 문학은 인간의 진실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에 형식보다는 내용이 훨씬 중요하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 문제이다. 내용은 형식과, 형식은 내용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학 작품이란 내용+형식이 아니라, 내용형식이다. 문학은 그럴듯한 내용에다가 그럴듯한 형식의 옷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침전된 내용이라는 형식을 갖고 있을 따름이다. 좋은 작품은 좋은 내용을 좋은 형식 속에 가둔 것이 아니라, 형식 자체가 내용이 되고, 내용이 형식이 되는 변증법적인 관계 속에 있다.

(다) 이 시는 검은 빛깔이라는 어두우면서도 강렬한 색채와 함께 검은색과 녹색이 결합된 역설적인 이미지를 통해 당대의 억압적인 현실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정치적 억압과 폭력에 침묵하는 사람들의 몸이 사물로 변화해 굳어가는 기괴한 이미지들을 보여주는데, 얼핏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는 현실은 이 과정에서 두려움을 자아낼 만큼 비정상적이고 이상한 것으로서 새롭게 감각된다. 화자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미 검게 사물화 되어버린 침묵하는 다수들에 둘러싸인 소년의 공포를 그려낸다. 이를 통해 화자는 현실에 대한 우리의 침묵이 이 세계를 더욱더 기괴하게 만들고 공포에 시달리는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어내는 원인일 수 있다는 점을 같이 보여주고, 현실을 마주하는 우리의 태도 자체가 올바른 것인지를 심문한다. 다시 말해 이 작품에서 기괴한 이미지와 같은 작품의 형식적 요소들은 단순히 하나의 특이한 미감(美感)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세계 자체를 새롭게 인식하고, 이러한 세계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행동방식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게끔 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다.

(라) 삶 자체의 조건에 쫓기는 동물과 다르게 인간은 유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꿈꿀 수 있다. 인간만이 몽상 속에 잠겨들 수가 있다. 몽상은 억압하지 않는다. 그것은 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의 몽상은 인간이 실제로 살고 있는 삶이 얼마나 억압된 삶인가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문학은 그런 몽상의 소산이다. 문학은 인간의 실현될 수 없는 꿈과 현실과의 거리를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드러낸다. 그 거리야말로 사실은 인간이 어떻게 억압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이다. 불가능한 꿈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삶은 비천하고 추하다.

(마) 환상은 가장 넓은 공간을 향해 열리는 지각의 한 종류이다. 실재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왔던 것들의 견고함을 부정하고 교란시키는 것이 바로 이 열어놓는 행위이다. 많은 환상물들은 불가능성이라는 개념과 연결되면서 이러한 개방적 활동을 지시한다. 불가능성의 제시는 그 자체로 급진적인 행위이다. 환상적인 것은 폐쇄적일 수 없다. 환상성은 닫힌 체계 내부에 있으면서 통일체라고 간주되어 왔던 공간에 침입하여 그 공간을 개방한다. 환상적인 것의 불가능성은 가능한 것 또는 알려진 것 뒤에 잠재하고 있는 다른 의미들 또는 리얼리티를 제안한다. 환상적인 것은 단일하고 환원적인 진실들을 위반하면서 한 사회의 인식 틀 내의 공간을 추적하여 다양하고 모순된 진실들을 이끌어 낸다.

(뒷면에 계속)

(바) 얼씨구나 절씨구. 엇그제까지 박홍보가 문전걸식을 일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어 석승*이를 부러워하며, 도주공*을 부러워하리?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아, 우리 집을 찾아오소. 나도 오늘부터 기민**을 즐란다,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절씨구 지화자 좋네. 이런 경사가 또 있나.

【아니리】 한참 좋아라고 절굿대춤***을 추었겠다. 여보시오, 마누라. 우리 굶주리던 속에, 쌀 본 김에 밥이나 좀 해 먹읍시다. …(중략)… 어찌 밥을 먹어 놓았던지, 밥이 목구멍까지 차가지고 정신이 없고, 눈을 뒤집어 까고 홍보가 죽게 되었구나. 홍보 마누라 밥을 먹다 가만히 보니, 자기 영감이 죽게 되었다니, 홍보 마누라 놀래 가지고, 아이고, 영감! 밥 먹다 죽다니, 이런 일이 어디가 있소? 어라, 아직도 내가 밥을 먹으려면 내, 쌀 석 섬은 더 먹겠구나.

【아니리】 홍보 자식들이 밥 먹느라고 자기 아버지 죽는 꼴도 못 보겠다. 이때 홍보 큰아들 놈이 썩 들어오며 제깃밥**** 먹듯 허겼다. 여, 밥판이 어떻게 되었소? 아이고, 이 녀석아. 밥이고 뭇이고, 느그 아버지 죽는다! 밥 먹다 죽는 게 뉘 아들놈한테 원망을 헌단 말이오? 너 이 녀석아,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느냐? 아, 밥 먹고 죽으면 죽었제, 쓰졌소, 거? 그래, 아버지 이 배가 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스럽게 생겼으니, 한번 튕겨 봅시다. ‘탁’ 튕겨 노니까, 어떻게 밥을 먹어 났던지, 뱃가죽이 장구 가죽 되야갓고 ‘땡그랑’ 소리가 나게 밥을 먹었던가 보더라. …(중략)… 홍보 자식들이 어떻게 좋던지, 거 여 배를 누르면서 꼭 누르는 것이, 이때 홍보가 어디 살았는고 하면 팔랑치***** 재 밑에 살았겠다. 똥 줄기가 운봉 연재*****로 그냥 넘어 달아오니까, 그 농군들이 논에서 일을 하다가, 아, 무지개살같이 그저 불그스름히 넘어오니까 어떻게 놀래 났던지, ‘황룡 올라간다.’ 하고 전부 절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그해 운봉 시절은 그냥 몇 해 풍년이 들어 갓고 잘 되었제. 이건 잠시 동안에 소리하는 선생, 잠시 저 재담이었다. 홍보가 좋아라고 둘째 통을 들여놓고 타는다,

【진양조】 시리령 실건, 툽질이로고나. 예여루, 당그여라. 시르르르르르. 실건 실건으 툽질이야. 이 박을 타거 드면,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서 은금보화가 나오너라!

*석승, 도주공: 옛 중국의 큰 부자들.

**기민: 굶주리는 백성.

***절굿대춤: 팔만 벌리거나 몸의 관절만 움직이거나 또는 아래위로만 움직이며 제멋대로 추는 춤.

****제깃밥: 음식을 차려 남을 대접하는 밥.

*****팔랑치, 연재: 전라도 운봉 인근에 있는 고개들.

(사) 판소리가 이룩한 예술적 광휘에 대해서는 달리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 작품의 예술적 성취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인물 형상과 문체 상황의 현실성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결말부에 비현실적·낭만적 요소가 질게 개입함으로써 그 의의가 퇴색된 측면이 그렇다. 〈심청가〉나 〈홍보가〉 같은 작품도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들 작품은 전반부에 당대적 삶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반영해냈지만, 그것을 후반부까지 일관되게 관찰하지 못한 채 비현실적 결말을 제시함으로써 한계를 드러냈다.

3-1. 제시문 (가)의 ‘문학의 기능’에 대한 제시문 (나)의 관점을, 제시문 (다)에서 근거를 찾아 추론하여 쓰시오. (250자±20자) [20점]

3-2. 제시문 (라), (마)를 활용하여 제시문 (바)의 ‘밥’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제시문 (사)의 관점을 비판하시오. (350자±20자) [20점]

* 주의 사항: 문제지, 연습지, 답안지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시오.